

담당_김미선

기능올림픽 등 세계대회선수 선발·육성안 마련 중앙회 기술분과·지도위원장회의 개최



(사)대한제과협회(회장 김영모)는 지난 7월 13일 중앙회 회의실에서 기술분과·지도위원장회의를 가졌다. 중앙회 김영모 회장, 조병천 수석 부회장, 안창현 기술분과위원장, 홍종훈 기술지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기능올림픽·월드초콜릿마스터스·이바 월드컵 등 다양한 국제대회에 출전할 선수를 선발하고 육성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를 통해 독일 이바쇼 현장에서 올해 처음 열리는 이바 월드컵의 규정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굽는 제품'과 '굽지 않는 제품'으로 나뉜 경연품목에 적합한 선수단으로 중앙회 서강현 기술분과위원, 불량제리가또 이일남 셰프를 선발해 3개월 남짓 남은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훈련계획 수립을 서두르기로 했다.

지난해 1회 대회를 개최한 이래 세계 최고의 초콜릿대회로 이름이 높은 '월드초콜릿마스터스'에 대한 논의도 펼쳐졌다. 김영모 회장을 비롯한 회의 참가자들은 월드초콜릿마스터스 참가가 국내 제과업계에서 초콜릿 저변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내년 3월 예선을 앞두고 참가를 원하는 제과인에 대한 예비서류심사 등 선수선발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했다. 한편 오는 2007년 시즈오카대회부터 국제기능올림픽 직종으로 새로 포함된 제빵직종 국내선수선발전에 출전할 훈련생을 산업인력관리공단과 손잡고 (사)대한제과협회 차원에서 선발·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훈련생 선발전을 위한 참가접수를 마감하기로 결정했다.

서강현·이일남 셰프 제1회 대회 출전 이바 월드컵 한국대표선수 확정

(사)대한제과협회는 이바 월드컵에 출전할 한국대표선수로 중앙회 서강현 기술분과위원과 불량제리가또 이일남 셰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강현, 이일남 셰프는 오는 10월 3일에서 9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이바 2006(iba 2006) 현장에서 독일제과협회로부터 공식 초청받은 세계 6개국 제과제빵인과 함께 실력을 겨루게 된다. 이들이 출전하게 될 이바 월드컵(iba Worldcup)은 독일제과협회가 올해 전시회부터 처음 신설한 국제경연대회로 이들에 걸쳐 '나의 조국'을 주제로 다양한 기술을 펼쳐 보게 된다. 1회 대회에는 일본, 중국, 멕시코, 칠레 등 6개국이 우승컵을 두고 도전장을 냈다.

전임지회장모임 '동인회'와 동반개최 서울시지회장협의회 친목대회



서울시지회장협의회(회장 김종주)는 지난 6월 19일 서울시 전임 지회장 모임 '동인회(회장 김연섭)' 회원과 함께 경기도 가평 유명산으로 하계 친목대회를 다녀왔다. 서울시지회장협의회의 이날 행사에는 중앙회 조병천 수석부회장, 박찬회 부회장, 정일석 사무총장이 함께 자리해 제과업계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유명산 등반으로 시작된 친목대회는 족구와 축구 등의 다채로운 체육행사로 이어졌다. 서울시지회장협의회 김종주 회장은 이날 행사의 취지에 대해 "서울지역의 제과업계를 대표하고 이끌어가는 전·현직 지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제과업계의 발전과 화합을 꾀함으로써 다함께 성장하자는데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지회장협의회와 동인회는 해마다 이 같은 친목대회를 열어 지역 간 정보교류 및 화합에 힘쓰고 있다.

과우친목회 손잡고 지역 제과인 단합 서울서부지회 회원 단합대회



서울서부지회(지회장 신홍중)와 서부과우친목회(회장 강동희)는 지난 6월 9일 2006년도 상반기 회원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서부지회 30여명의 회원은 충남 서산시 우력축제대회 현장을 찾아 서로 우호를 다지고 오랜 경기불황으로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는 회원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신홍중 지회장은 "그동안 서부지회 및 지역 제과업계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주신 회원 여러분을 위해 오늘의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회원이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친목행사를 마련해 지회의 단합과 발전을 꾀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서울서부지회는 지난 6월 23일 서대문구 문화회관에서 142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여름철 식중독 예방 및 일회용품 사용 자제 등을 주제로 기존업주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특별자치도 승격 따른 식품정책 변화 설명 제주도지회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제주도지회(지회장 박광만)는 지난 6월 19일 제주시 제주학생문화원 소강당에서 2006년도 상반기 제과점영업업종에 대한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위생교육에는 모두 122명의 제주지역 제과점 업주들이 참석해 식품위생법, 여름철 위생, 고객만족경영 등

을 주제로 다양한 강의를 듣고 지역 제과업계의 발전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제주도청 보건위생과에서 지난 7월 1일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승격출범에 따른 식품위생정책 및 도 정책의 변화방향을 자세하게 설명해 교육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 얻었다. 이날 위생교육에서 제주관광대학교 호텔조리학과 강다원 교수의 선창으로 제과제빵업계의 5대 정신을 낭독했다.

담당: 김미선

경기도 지역 제과인 축구로 단합 다져 수원시지부 수과회 회장기 축구대회



지난 5월 21일 수원시지부(지부장 임채순) 소속의 수과회(회장 윤춘식)가 회장기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수원 만석공원 축구장에서 열린 이날 축구대회에는 수원축구회, 안양

이글스, 안산축구회, 부천축구회, 시흥축구회 등 경기도 지역의 제과인 축구모임이 모두 출동해 지역의 명예를 걸고 한판 승부를 벌였다. 치열한 경기를 펼친 이날 대회의 우승컵은 부천축구회로 돌아갔으며, 안산축구회와 안양이글스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이날 축구대회에는 수원시지부 임채순 지부장, 현대제과직업전문학교 강연숙 교장, 대한제과직업전문학교 오병호 교장을 비롯한 제과업계 내외빈이 참석해 경기도 지역 제과인들의 화합과 우정의 장을 빛냈다.

위생·서비스·상품포장 다양한 커리큘럼 구미시지부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구미시지부(지부장 정상기)는 지난 7월 6일 구미시 도량2동 새마을금고 회의실에서 2006년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92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 이날 위생교육을 통해 구미 지역 제과점 영업주들은 구미시청 생활위생과의 강의로 '식중독 예방과 위생'에 대해 배우고 구미대학 호텔경영학과 교수로부터 친절서비스 및 경영기법을 전수받았다. 교육에 참가한 회원들은 "업소의 위생이나 청결 등 평소 자칫 무시코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면서 대체로 좋은 반응을 보였다. 이날 교육에는 빵과 케이크에 정성스러운 선물의 의미를 주는 '상품포장기법'에 대한 강의로도 열려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2006 경기빵·과자경진대회 앞두고 성남시지부 홍보 세미나 개최



성남시지부(지부장 방충성)는 지난 7월 10일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국제제과기술학원에서 '2006 경기빵·과자페스티벌' 홍보를 위한 회원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앙회 기술분과위원이자 용인시지부 지부장인 위재상 기능장의 실

연으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현미청국장브레드' 등 4~5가지 빵과 케이크를 만들었다. 이날 기술세미나를 통해 성남시지부는 오는 9월 열린 경기빵·과자페스티벌에 회원들의 열띤 참가를 당부했다.

경기도지회가 경기도의 후원을 받아 오는 9월 개최되는 경기빵·과자페스티벌은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제품 전시회, 경기빵·과자경진대회, 엄마와 함께 예쁜 케이크 만들기 등의 다채로운 행사로 꾸러진다.

체육대회로 회원단합 및 지부발전 논산시지부 하계 체육대회



충청남도 논산시지부(지부장 박용순)는 초여름을 맞아 지난 6월 6일 논산시 가야곡면 성덕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회원체육대회를 개최했다. 2년 만에 열린 이날 체육대회는 25명의 회원이 참가해 축구와 족구 등 다양한 스포츠로 논산 지역의 제과업계가 서로 우호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이날 행사를 위해 논산시지부 협력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밤, 마가린 등의 푸짐한 상품을 협찬해 행사 분위기를 한껏 돋웠다. 논산시지부 박용순 지부장은 이날 행사의 취지에 대해 "회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친목을 다지고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다함께 발전하는 장"이라는 뜻을 밝혔다.

서비스 교육 및 경영 성공사례 주제로

진해시지부 경영·서비스 세미나

진해시지부(지부장 이선구)는 지난 7월 14일 '고객서비스 및 경영 세미나'를 열어 회원을 대상으로 경영마인드 교육을 실시했다. 4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모두 100명의 회원이 참가해 열띤 교육열을 나타냈다.

이날 경영관리부문의 성공사례 강사로 초빙된 부산 시트론과자점 이호영 대표는 개인 제과점의 브랜드 구축과 주기적인 제품 구성의 변화, 직원 만족도 높이기 등 다양한 주제를 구체적인 사례를 덧붙여 소개해 교육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실시된 서비스 예절교육에는 제과점에서 접객을 도맡고 있는 여성들이 참가해 고객만족 서비스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진해시지부 이선구 지부장은 "그동안 업계에서 기술세미나는 여러 차례 개최됐지만 정작 점포경영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객 서비스나 마케팅 세미나는 도외시돼왔다"면서 "앞으로도 회원들의 점포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경영기법 개발과 전파를 위해 지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